은은한 푸른 빛깔이 도는 독특한 재료로 겉을 장식한 에브릴 청사. 건물의 안쪽에는 마치 처음부터 준비된 듯한 커다란 연회장이 존재한다. 어지간한 나라의 위기가 아니고서야 매년 적어도 한 번씩은 개방되는 장소였다. 이미 연회장은 특유의 행사 분위기로 가볍게 달아올라 북적이고 있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선 것과 달리 연회장에 모인 마법사들은 저들만의 용건이나 수다로 바빠 조용히 입장한 두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챙 넓은 모자를 눌러쓴 밀라와 평소와는 다르게 말끔히 꾸민 실리카 양쪽의 분위기가 다른 탓도 있을 터였다. 어느 쪽이든 다소 김빠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되는 상황이었다. 연회 참석 신고를 하는 장소는 연회장을 쭉 건너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참석 도장을 찍고 간단한 마력 검사를 받은 후에는 연회를 즐기던, 귀가를 하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4년짜리 자유의 몸이 될 것이었다.

“조금 일찍 오길 잘 한 거 같아. 로시난테 아카데미의 교수진들은 아직 도착 안 한 모양이네.”

“…그렇군요.”

“마법사 쪽수가 적다고는 해도 전 제국 대상이니까. 4년에 한 번 얼굴을 비추면 잘 못 알아 본단 말이지.”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실리카를 보며 밀라는 희미하게 웃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쓸만한 정보를 얻지 못한건 아쉬웠으나, 밀라는 적당히 바람을 쐬었다 생각하고 오늘은 가볍게 귀가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람 생각이나 계획은 좀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어서 바로 잠시 전 가볍게 가졌던 마음은 상상도 못한 계기로 인해 틀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우연히 연회장에서 부딪힌 사람이 이전 직장 동료였다거나 하는 우연 등 말이다. 심지어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던 사람과!

“허?”

“…?”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화려한 연회복을 입은 남성이 삐딱하게 한쪽 눈썹을 들어올리며 오만하게 밀라를 내려다보았다. 새삼 야비한 인상이다, 하고 밀라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무렵. 남자가 먼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마음을 놓고 있던 실리카가 남자를 제지하기 전 일어나버린 사건이었다. 남자가 입을 열자 얼굴과 꼭 어울리는 비열한 어조의 목소리가 크게 쩌렁쩌렁 울렸다.

“어이쿠, 이거 밀라 레첸스 선생님 아니십니까?”

“… …”

“아니지, 이제는 전! 선생님이니 제가 말을 조심해야겠군요! 어어디 흑마법사한테 무서워서 바른 말 하겠습니까?”

대놓고 업신여기는 어조였다. 밀라 레첸스, 그리고 흑마법사라는 두마디에 연회장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저마다 무언가의 내용을 담은 웅성거림이 뭉개진 말음으로 귀에 들려왔다. 그러거나 말거나, 밀라는 표정의 변화 없이 이놈 봐라? 하는 심정으로 남자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이런 극적인 타이밍에 진짜 밀라의 기억이라도 기적처럼 떠올라주었으면 하는데…’

물론 절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초면의 남자를 돌처럼 슥 훑어보며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밀라의 이런 무심한 행동 어디가 야비한 남자를 자극했는지 그는 돌연 분노하며 안 그래도 큰 목소리를 높였다. 듣다 못한 실리카가 밀라와 남자 사이를 막아서며 남자를 옆으로 밀어내었다.

“그만 좀 하시죠, 바렐 씨.”

‘아하, 저 사람 이름이 바렐 씨군요. 기억했답니다.’

“허어? 이것 참? 실리카 씨 아닙니까? 오랜만입니다? 밀라 전! 선생님이 어디서 또 새로운 약혼자를 구해오셨나 했더니만… 약혼자가 아니라 자기 편만 들어주는 왕자님을 데리고 오셨군요!”

도장 찍고 나가는데 죽은 애 엄마가 음료를 쏟았고 실리카가 닦을 것과 마차를 불러 오려는 사이 밀라는 인적 없는 정원에 피신해 있다가 남주를 만남